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웃종교와의 대화

23일 오후8시 서울 종로성당.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스님 신부 목사 교무 수녀 정녀 그리고 각 종교의 신도들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필감을 풀어 붓을 잡은 화가가 되었다.

한국종교인명화회의(KCRP)가 마련한 '이웃종교문화 이해 강좌-원로의 대화'. 이 날은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 초청되었다. 각 종교의 수행자 교역자,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도 등 60여명이 종로성당 강당을 메웠다.

원로의 대화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KCRP 변진홍 사무총장은 "이웃종교의 어른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구도자로서의 체험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이웃종교에 이해를 넓히고 자기종교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도들이 이웃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해소하기 쉽지 않다. 서점에 둘러 책을 들춰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15분 정도의 기초강연 후 문답이 이어졌다. 이런 기회를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1시간으로는 너무 짧았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성타스님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며 답했다. "이미 지니고 있는 불성과 내가 합일되어 욕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신앙 대상은 부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내 마음의 부처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시는 착한 벗(朋友)이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불상의 종류가 왜 그리 많습니까?"

"불교가 여러 나라로 전래되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중생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제시했으며, 불상도 이 과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가 준비한 사찰음식을 시식하며 이 날의 잔치를 끝맺었다.

이웃종교문화 이해 강좌는 6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오후 7시30분-9시30분) 열린다. 월요일엔 이웃종교 이해 강좌, 수요일엔 원로의 대화와 종교문화 소개로 진행된다. 정성운(취재 1부 차장)

“해방 이후 첫 교육불사 1956년 오대산 수도원”

탄허스님 인재 30명 선발 수선·간경 등 교육

김광식 박사 자료공개

비구 대처 싸움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화 직후의 불교계에 청정한 새 기운을 불어넣고 계 정 해 삼학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꾀하는 취지로 설립된 '오대산 수도원'의 이념, 행정, 지향 등 그 내용이 자세히 공개됐다.

불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대서특필로 존경받았던 탄허스님(1913-1983)이 1956년 월정사에 설립한 '오대산 수도원'은 우수한 인재 30명을 선발하여 참선과 불교학, 동양철학을 가르치는, 수선과 간경이 한데 어우러진 해방 이후 최초의 승려교육기관의 산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윤창화 민족사상과 근현대불교사 연구가 김광식 박사가 1년여에 걸친 자료 수집과 오대산 수도원에서 수화했던 스님들의 증언취 취 등 집중적인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계정해 삼학 경수를 통한 승려교육으로, 일제시대와 정화운동 중 거치면서 더욱 노골화된 승가의 모습을 해소시켜 보겠다는

오대산 수도원의 교육결사는 경허·한입 스님에게 이어졌던 정해결사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점에서 탄허 스님의 열반 18주기(1983년 6월 5일 입적)를 맞는 오늘날의 승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이다.

탄허스님은 오대산 수도원의 원훈을 "신원건고(信願堅固) 길라무범(吉羅無犯) 정혜쌍수(定慧雙修)"로 정하고 철저한 믿음과 계율의 준수, 선정을 통한 지혜의 실천을 목표로 해 자체적 지속적인 내부 정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코자 하였으며, 이 시기의 교육목표대로 하여 이후 25년에 걸친 <화엄경합본> 등 기념비적인 역경 작업도 추진하게 된다.

수도원은 2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월정사에서 비구대처 싸움이 재연되고,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1957년 겨울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탄허 스님은 수도생 일부를 이끌고 삼학영은사로 수도원을 옮겨 3년을 마저 채워 교육결사를 수행해 냈다.

김광식 박사는 "오대산 수도원은 정화운동에 대한 철학의

식에서 비롯된 교육결사로, 정화의 목적이 사찰점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도량에 보다 청정한 사람을 만들고,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왜곡, 파행된 수행풍토를 바로잡으려는 탄허스님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교육도량"이라고 밝히고 "스님은 대부분의 강의를 직접 맡는 등 헌신적인 봉사와 열의로 승풍 진작, 청정 종단 재건을 원대한 목적으로 삼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오대산 수도원이 현대 조계종사에서 도제양상, 교육불사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박사는 "지눌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념적 기초로 삼은 오대산 수도원은 경허·한입 스님에게 이어졌던 정해결사의 현대적 변용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종단차원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더라면 불교계가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경숙 기자 glee@buddhista.com

▶ 관련기사 3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열망하는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가 24일 새만금갯벌 생명명화연대 회원 1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동성당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3보1배 기도순행 시위를 했다.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는 3보1배 시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보는 탐진치 3독을 극복하는 상징행위이며, 속진의 도회지 한복판을 가로질러 앞으로 올리는 한차례의 짙은 생명경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없다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엄숙한 참회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새만금 개발 반대”

각계 1445명 선언

정부, 순차개발 확정

새만금갯벌 생명명화연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 노동계 문화 예술계 등 사회각계 인사와 노불상 수상자, 국제환경기구 대표 등 1,445명이 서명한 새만금사업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새만금 개발은 세계최대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생명의 가치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 환경 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간척사업에 환경친화적 순차개발 방식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004년까지 전체 방조제를 완공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민청강 지역은 당분간 수문을 열어놓고 수질개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척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u@buddhista.com

“도난문화재 신고 보상 검토”

김대통령, 종교대표 오찬서

김대통령은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거나 도난당하면 전 민족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며 "문화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도난문화재 등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종교계 대표들로부터 △남북 화해 협력 관계의 지속 △4대 개혁과 구조조정의 철저한 추진 △문화재 훼손과 도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건의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정대스님은 특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5-6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문화재 전담수사요원을 양성하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은 경제강국이 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민족의 화해·협력력을 추진하는 두 가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종교계가 국민의 화합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성운 기자

“남북 공동행사 열자”

6·15선언 1주년 추진본부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23일 서울 운니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북측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민족화해협의회에 제안했다.

추진본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종교 사회단체 대표 17명이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거래 대합창6월 15일 여의도공원 문화의광장, 남북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63빌딩 국제회의장), 통일박람회(6. 14-17, 여의도공원)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정성운 기자

4개 종교 ‘환경회의’ 창립

정보 공유·환경연대 활동

종교계 생명·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등 4개 종교, 13개 환경단체는 22일 조계사 불교환경연구소에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수경스님) 창립식을 갖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간 정보공유와 종교환경 연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종교환경연대는 이날 창립식에서 △3개월마다 종교환경포럼 개최 △7월 종교환경활동가 워크숍 개최 △지리산 및 부산지역 네트워크 포럼 개최 △환경문제 공조 등의 사업을 전

개해했다고 천명했다.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종교의 가르침은 자발적인 기부와 청빈 그리고 무소유를 기반으로 깨달음과 영성을 추구하는데 있다"며 "그동안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통합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된 종교환경회의는 지난해부터 종교단체들이 지리산단 건설 반대운동,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등을 함께 전개하며 조직적인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창립하게 됐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18면

장군 죽비

◇한국불교 해외 포교의 빛과 그림자. 그림자: 봉사 활동 등 사회 참여 소극적, 빛: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 중심 이동. (2면)

◇생명존엄 사명제 폐지로 구현하자. 세속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더라도 자비의 이름으로 용서 못할 일은 없다. (8면)

◇'신홍사 불교대학' 개교. 교계 최초로 거사들의 자발적 발원에 의해 설립된 불교대학. 생활불교의 열매 동해가에서도 수확. (11면)

◇부드러운 능히 강함을 이긴다. 관세음보살의 현신 비구니 스님들.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에 큰 역할. (23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潤年壽衣)는 말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례 약수, 베선, 도포근, 베개, 허리띠, 덧날, 오날, 면포, 향선, 탁발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바지, 치마, 이불, 요, 장례 베개, 향선, 면포, 약수, 베선, 오날, 탁발이, 면포 (총 18종)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정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특모이상)

종류	구입	내용	예약판매가	불자입가	특별혜택
삼베 2종	남 20종, 여 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40대 불자지, 오동나무 비스, 보편함
삼베 1종	남 20종, 여 18종	삼베의 불순물을 1회 이상 제거한 후, 장선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40대 불자지, 오동나무 비스, 보편함
삼베 9종	남 20종, 여 18종	인물 상에서 개발한 대이 100% 원사 수직으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인공로 신체를 기준으로 제조, 정제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0대 불자지, 향나무 비스, 보편함, 삼베정구 세트증정
수직 9종	남 20종, 여 18종	인물 상에서 개발한 대이 100% 원사 수직으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인공로 신체를 기준으로 제조, 정제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0대 불자지, 향나무 비스, 보편함, 삼베정구 세트증정
인공로 9종	남 20종, 여 18종	순수 삼베 직면 100%를 대체적으로 제조하여 직면정제된 최상급 정제된 최상급	4,200,000원	3,950,000원	100대 불자지, 향나무 비스, 보편함, 삼베정구 세트증정

■ 갯에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윤달(윤사월 5.23 ~ 6.2)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株式会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정, 경북 안동시 서후면 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